



슈라쿠엔 대불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대불-

슈라쿠엔 대불 및 경내지 / 도카이시 지정 문화재(명승) 제59호 1983년 11월 24일 지정

슈라쿠엔 대불 및 인왕상 / 도카이시 지정 문화재(건조물) 제76호 2021년 2월 18일 지정

슈라쿠엔 대불이란 ?

슈라쿠엔 대불은 1927년에 완공된 일본 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대불입니다. 완공 당초에는 일본 최대의 크기를 자랑했습니다. 대불을 건립한 사람은 실업가 야마다 사이키치라는 인물로, 1916년에 기부금을 모아 건립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좀처럼 기부금이 모이지 않아, 사재를 털어 '쇼와천황 결혼기념사업'으로 1924년에 착공하여 3년에 걸쳐 완공하였습니다.

야마다 사이키치가 사망한 후에는 기업이 소유했다가, 1983년부터 종교법인 다이부쓰지 절의 소유가 되었으며, 시민들의 기부를 통해 대규모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지역의 상징으로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슈라쿠엔 대불과 그 경내지는 이세만에 인접한 고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그 경관이 높은 평가를 받아 1983년에 시 지정 문화재(명승)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건조물로서의 가치도 인정을 받아 2021년에 슈라쿠엔 대불과 인왕상이 시 지정 문화재(건조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 조사

(2018년도 ~ 2020년도)

슈라쿠엔 대불은 건조 당시의 기록이 대부분 남아있지 않아, 어떤 구조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3년에 걸쳐 정확한 도면 제작 및 구조 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밝혀냈습니다.

○판명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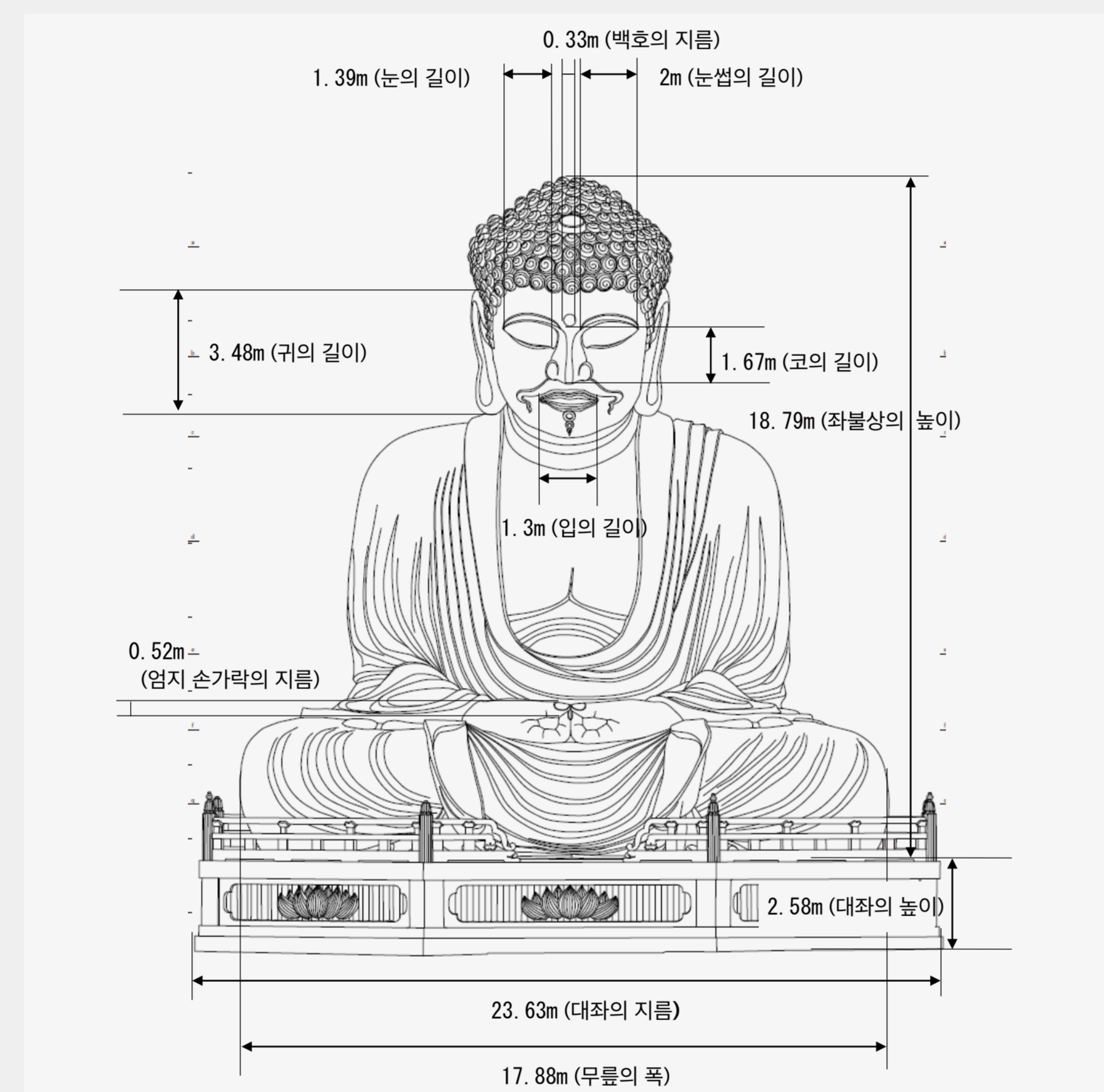
- ① 건조 당시에는 일본 최초·최대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대불이었다.
- ② 철근 콘크리트로 복잡한 형태의 본체를 만들고, 바깥쪽은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형태를 만들었다.
- ③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열화가 진행되지 않았다.
- ④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조형적 이점이 나타나 있으면서, 거대한 대불의 건설을 가능하게 한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는 조형물이다.
- ⑤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공공물로서, 건조 시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 경관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 콘크리트…… 시멘트+물+잔골재(모래)+굵은골재(자갈) 등으로 구성된다.주로 구조체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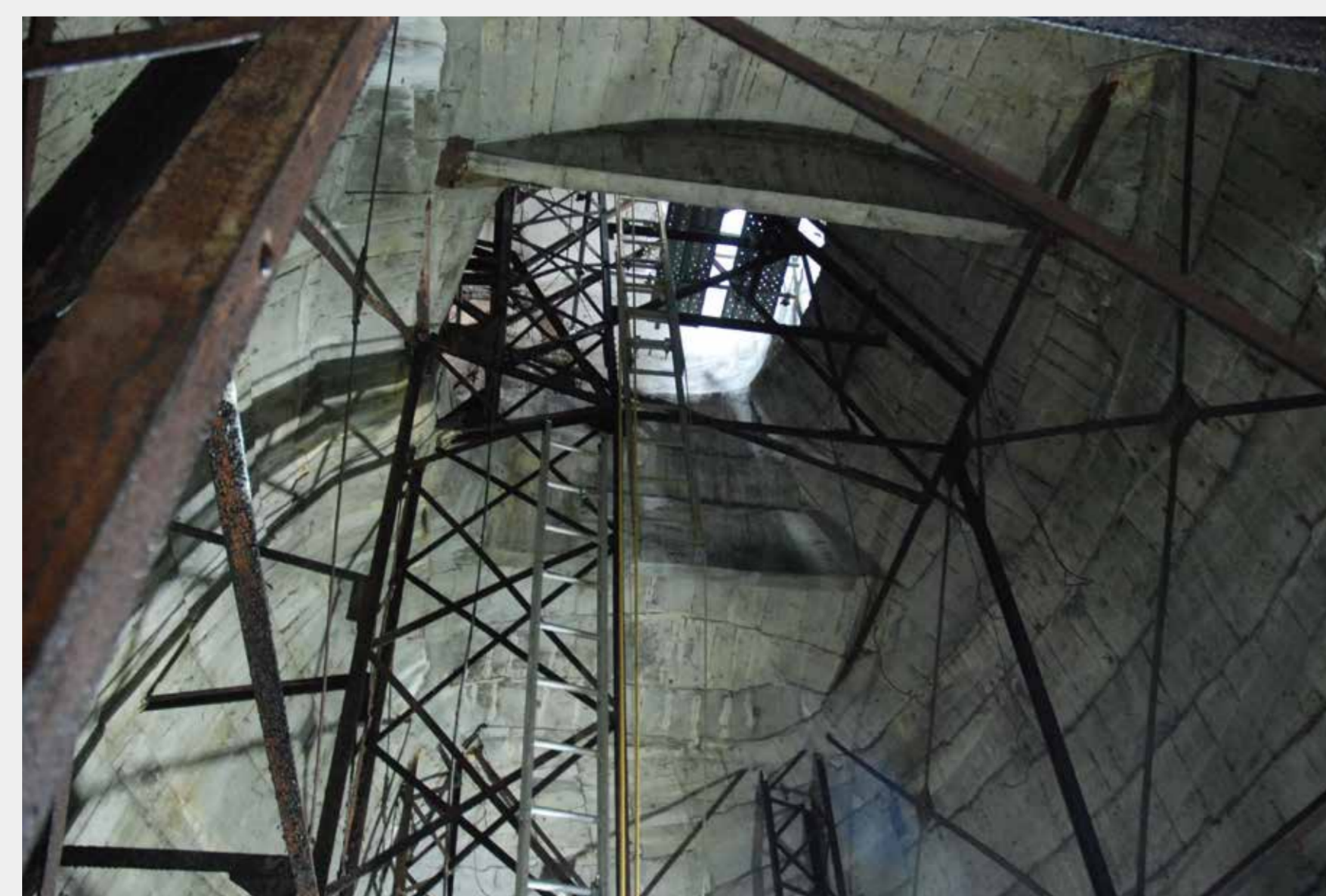
※ 모르타르…… 시멘트+물+잔골재(모래) 등으로 구성된다. 주로 건물의 외장과 마감에 사용된다.



완공 당시의 슈라쿠엔 대불(슈라쿠엔 대불 그림에서에서 발췌)



슈라쿠엔 대불의 각 부분의 크기



문화재 조사 모습 내부의 불전 천장 뒤쪽은 넓은 공동으로 되어 있어, 머리 부분까지 발판을 설치하여 구조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대불의 구조·건조 방법

대불 :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인왕상 : 철근 모르타르 구조

대불은 내부에 척추와 같은 철골 기둥과 주변에 4개의 기둥이 있는데, 구조의 중심이 되는 콘크리트는 두께가 10~60cm 정도이며, 그 외부 면은 모르타르로 매끄럽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제작 중에 다시 만든 것 같은데, 내부 조사에서 그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대불의 건조 방법

- ① 10분의 1 크기의 원형을 만들고, 원통형으로 자른다.
- ② 원통형으로 자른 것을 확대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높이 60cm의 형틀을 만든다.
- ③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들어가며 1단씩 건조한다.
- ④ 척추에 해당하는 철골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운반했다.
- ⑤ 굳은 콘크리트 위에 라스(철망)를 고정하고 모르타르를 발라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다. 이 때 색을 섞어 착색했다.
- ⑥ 내부(불전)와 대좌의 마감 작업을 거쳐 완성.

· 인왕상은 철골로 된 뼈대에 철근을 감은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모르타르를 발라 만들었습니다.

건조자·시공자에 관하여

○건조자:야마다 사이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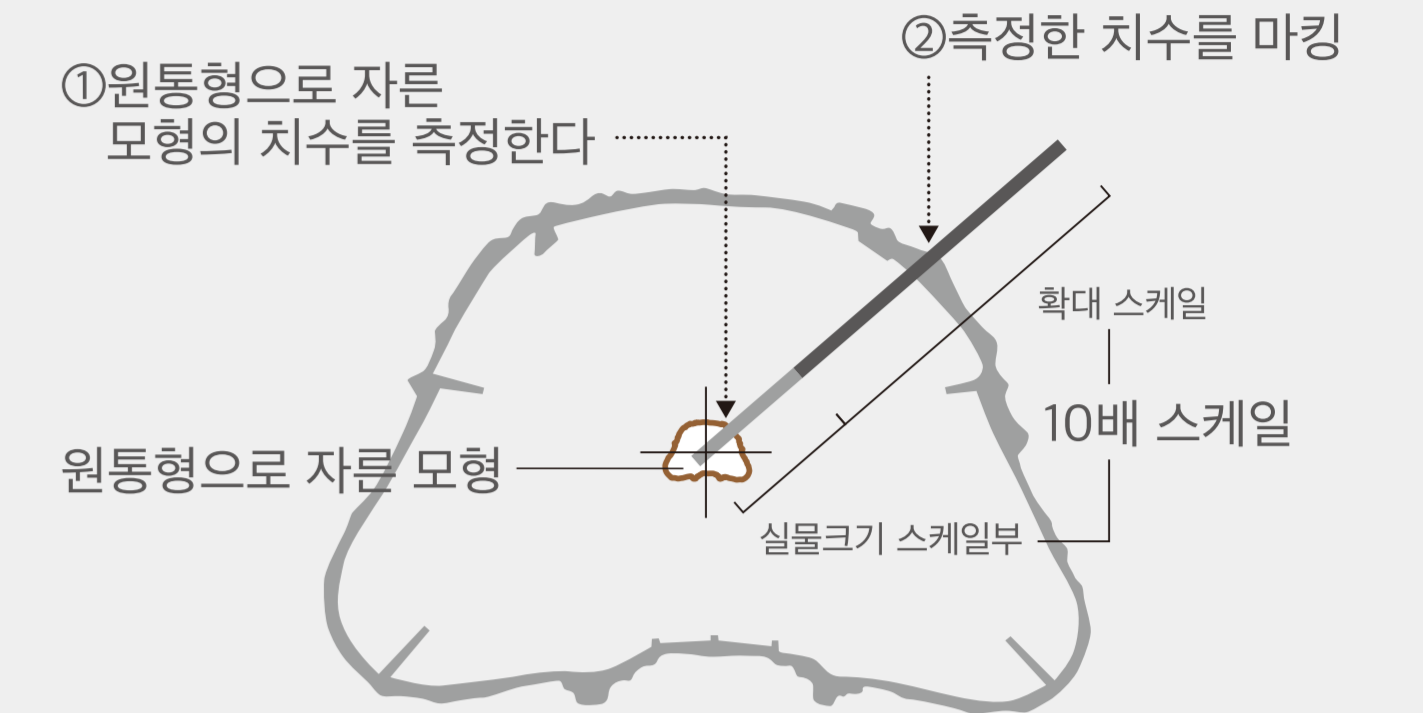
기후현 출신의 실업가로, 메이지~쇼와시대 초기에 걸쳐 나고야에서 활동하였습니다. 모리구치 무절임의 고안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키치는 다양한 사업을 하였는데, 요리여관으로 유명한 슈라쿠엔 여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슈라쿠엔 대불은 사이키치가 말년에 슈라쿠엔 여관 부지에 사재를 털어 만든 것입니다. 건조비는 당시 금액으로 15만엔(현재의 2~3억엔)이었다고 합니다.

○시공자:야마다 미쓰키치, 고토 구와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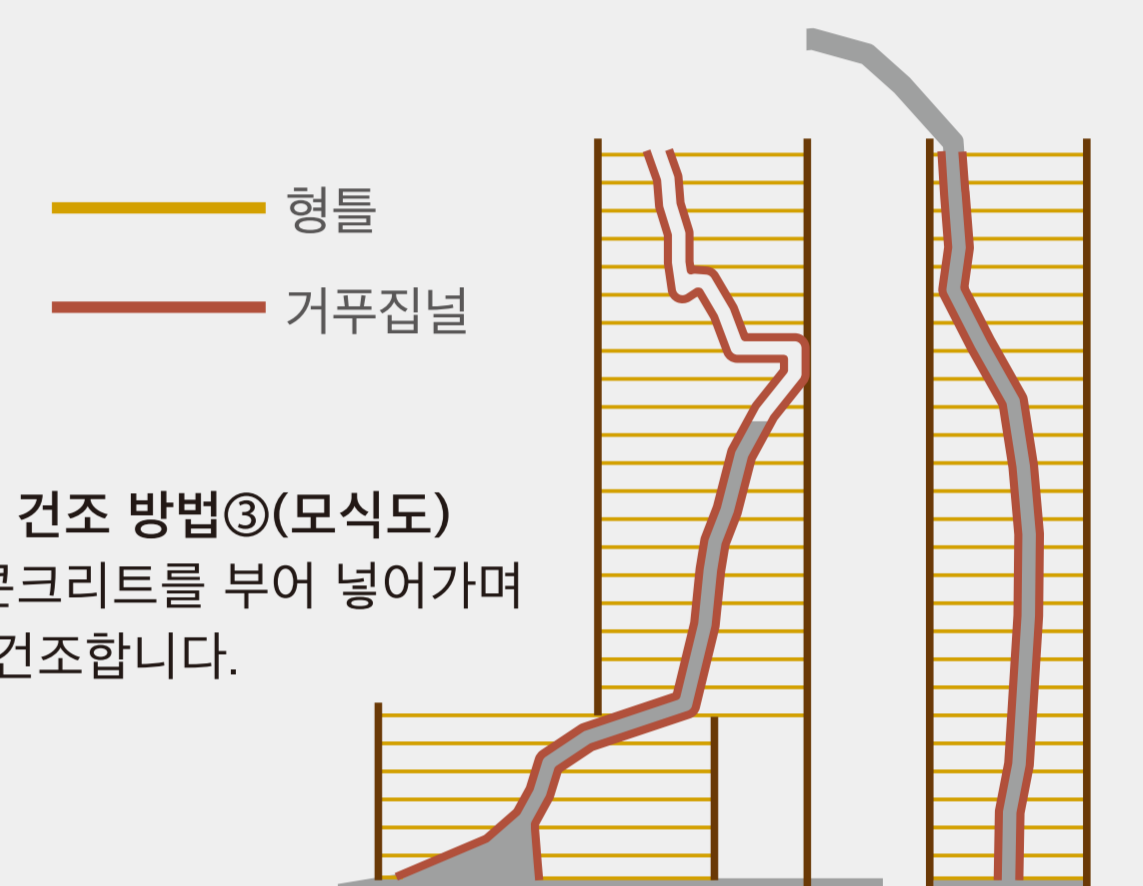
야마다 미쓰키치는 나고야의 페인트 장인으로, 제자인 고토 구와고로와 함께 가마쿠라의 대불을 모델로 하여 전례가 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대불을 만들었습니다. 3년에 걸친 건조 공사에는 그 지역의 미장공을 비롯해 목수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이후, 야마다 미쓰키치는 유다나카 온천의 호국관음(나가노현 야마노우치마치·현존하지 않음)을 만들었으며, 고토 구와고로는 도토쿠 공원의 고래(나고야시 미나마구)와 가리야도의 대불(니시오시)을 만들었습니다.

다이부쓰지 절에 관하여

다이부쓰지 절은 슈라쿠엔 대불을 본존으로 모신 조동종의 사원으로 198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대불의 건조 방법①(모식도) 원통형으로 자른 원형을 확대하여 실제 크기의 선을 그립니다.



대불 내부에 남아 있는 형틀 자국



건조 관계자의 준공 기념사진